

OPEC의 유가제도 변천과정

1. OPEC의 창설 목적

OPEC(석유수출국기구)는 지난 '60년 9월(이란,이라크,쿠웨이트,사우디 아라비아 및 베네수엘라등 5개 산유국이 중심이 되어 정부간 기구로 출범하였다. OPEC의 시설목적은 ① 회원국의 석유정책에 관한 협력과 통합, 회원국의 이익을 개별 및 집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수단 마련, ② 부적절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가격 안정수단의 강구 ③ 산유국의 안정적 석유수입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비국에 대한 석유의 효율적 경제적 및 지속적 공급 등이다. OPEC는 이를 위하여 공시유가 및 쿼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 석유시장 지배력은 약하였다. 제1,2차 석유위기 및 걸프 사태에 따른 고유가는 OPEC의 시장지배력이 아닌, 외부경향에 의한 결과이다. OPEC의 유가제도는 창설 이후 2단계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1단계는 '82년까지 다양한 유가제도를 거친 시기, 2단계는 '83년이후 현재까지 본격적인 쿼타제도 및 기준유가제도를 도입한 시기이다.

OPEC는 '82년까지 쿼타제도도입 없이 개별 회원국의 자율적인 생산하에 OPEC가 정한 가격정책 기준안을 준수토록 권고하여 왔다. '62년에 개별 회원국의 수입제품가격지수 연동제, '66년의 과세기준 공시가격제, '69년의 주요 선진국 제조품가격지수 연동제, '70년 주요선진국의 통화가치변동에 따른 공시가격인상등이 이에 해당한다. '71년에는 23개 국제석유회사간에 테헤란협정을 체결, 아라비안 라이트 원유가격을 배럴당 2.186달러로 결정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0.05달러씩 인상하는데 합의하였다. 테헤란협정으로 아라비안라이트 원유

가 회원국의 공시가 결정기준원유(Marker Crude)로 등장하게 되었다. 아라비안라이트 공시가격은 74년 1월에 11.651달러, '79년 4월에 14.546달러 그리고 '80년 57차 총회에서 32달러, 같은해 58차총회에서 30달러, 같은해 59차 총회에서 32달러로 결정되는 등 시장여건에 따라 조정되어 왔다.

2. 쿼타제도의 도입

OPEC는 '82년 5월의 64차 총회에서 공시유가의 효율

〈表-1〉 석유 쿼타개념의 정의
(84차 비엔나총회시 채택 / '88.11.21~28)

- (1) 개별 회원국의 쿼타정의는 생산원유와 스톡(Stock) 변동의 합계 쿼타 구성은
 - (a) 국내소비(국적운반설비에 판매된 병커, 항공연료 및 석유산업 자체소비 정제순실분을 포함한, 원유와 정제제품 판매의 합계)
 - (b) 국외유출 원유 및 정제제품의 순수출
 - (c) 국외보유 비축기타의 원유 및 정제제품의 스톡 방출
- (2) 생산정의는 합작지역생산 지분원유를 포함한 원유 총계로 비축기저저 측정
- (3) 생산, 국내소비, 순수출량 및 스톡방출자료는 일단위로 사무국에 제출
- (4) 회원국은 감시위원회(Monitoring Committee) 혹은 독립계 감시단의 생산통제시스템 적용을 결정
- (5) 대여원유는 수용국쿼타에 속하며 반환시는 대여국 쿼타로 귀속

적 관리를 위하여 창설 22년만에 처음으로 쿼타제도를 도입하였다. 쿼타제도 도입의 근본적 배경은 1,2차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소비국에서 추진되어 온 일련의 석유 소비절약과 非OPEC생산국의 석유생산량 증대로 OPEC 시장점유율이 축소되고 유가약세가 초래된데서 기인한다. 즉, OPEC는 유가상승노력의 일환으로 쿼타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64차총회는 아라비안라이트 기준유가 34달러 방어와 함께 이의 달성을 위하여 '83년 4월 1일부터 1,750만 B/D 산유쿼타 유지를 결의하였다. 이 총회에서 개별 쿼타가 처음으로 배정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715만 B/D(40.85%), 이란과 이라크는 120만B/D(6.86%)가 배정되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최대 쿼타배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조정자(Swing Producer)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가가 10달러이하로 폭락하였던 '86년의 가격전쟁(Price War)은 시장점유율 축소에 견디지 못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급조정자 역할을 포기함으로써 촉발되었던 것이다.

쿼타조정은 66차 총회에서 1,850만B/D, 67차 총회에서 1,750만B/D, 그리고 70차총회에서 1,600만B/D로 계속 감소되어 나갔다. 쿼타축소는 세계 석유수요 감소와 非OPEC 산유량 증대에 따른 유가하락 압력을 막아 보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79~'84동안 자유세계 석유수요는 11%가 감소한 반면, OPEC석유판매량은 '79년의 3천1백만B/D에서 '84년에는 1천8백만B/D로 40%나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동기간의 非OPEC 산유량은 2천만B/D에서 2천4백만B/D로 23%가 증가하였다.

한편 84차총회는 쿼타개념의 정확한 규정과 함께 콘텐센이트의 개념 정의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전까지의 쿼타개념은 묵시적으로 산유량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그 해석상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다. 이 총회에서 채택된 쿼타 개념은 생산원유 뿐만 아니라 국내소비 및 순수출 그리고 재고변동으로 구성, 원유와 제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3. 고정 기준유가제도 도입

OPEC는 지난 '86년 12월 80차총회에서 이전의 기준

원유이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라비안라이트원유에서 탈피하여 신규 고정가격제도를 도입, 기준가격을 18달러로 채택하였다. 기준가격은 7개종(OPEC 6개유종, 非OPEC 1개유종으로 멕시코의 *Isthmus*)을 바스켓으로 구성, 이의 평균가격을 사용하였으며 품질·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정가격제도 도입과 기준유가 18달러의 설정은 OPEC에게 주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그동안 회원국들의 자국산 원유판매가격은 총회에서 결정한 기준유종 아라비안라이트유가 대비 품질별 차이를 고려, 판매토록 되어 왔으나 이는 실시단계에서 거의 무시되었다. 18달러이하의 유가약세에 따라 18달러기준가격은 OPEC의 결속력을 유지해야 할 목표가격 역할을 하였다.

1988년 11월의 84차총회는 기준유가수준이 집중 논의되었다. 주요 논의안은 변동가격제도를 도입, 석유시황에 따라 기준유가를 최저 14달러에서 최고 18달러까지 4달러의 변동폭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유가가 14달러이하일 경우 5%의 기준쿼타 감축을, 18달러이상일 경우 5%의 증대를 허용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변동유가제도는 이란, 알제리 및 리비아 등 가격인상국의 반대로 채택치 못하였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15달러 최적 판매가격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다수회원국의 반대로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OPEC는 87차총회('90년 7월)에서 기준유가 21달러의 인상에 합의하였다. 본 총회에서는 다양한 기준유가수준이 제시되었는데 중동 온건국(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및 카타르)을 포함, 베네수엘라, 알제리는 20달러, 이라크, 리비아, 에콰도르 및 가봉은 25달러,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22달러를 주장한 바 있다.

4. 향후의 전망

현재 OPEC의 원유생산은 걸프사태에 따른 공급장해를 막기위해 쿼타를 벗어나 자유방임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태해결 이후 OPEC은 쿼타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쿠웨이트, 이라크 양국은 그동안의 생산중단을 보상받기 위해 증산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기타국의 쿼타준수 내지는 축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OPEC는 최저기준유가 21달러 유지를 위한 결속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나 걸프지역 OPEC산유국(사우디,

〈表-2〉 쿼타 및 기준유가 변천과정

(단위 : 만B / D)

실시기간	총 쿼타	기준유가	비 고
1982. 4~1982.12 (64차, 1982. 5.20~21)	1,750.0	34\$ / B (’82년 평균)	기준유가는 A / L(<i>fob</i> .라스타누라 항) 기준. 국별쿼타 배정
1983. 1~1983. 3 (66차, 1982.12.19~20)	1,850.0	29.5\$ / B (’83년 평균)	국별쿼타배정은 정부간 협의하에 결정
1983. 4~1984.10 (67차, 1983. 3.14)	1,750.0	29.00\$ / B (’84년 평균)	국별쿼타배정. 사우디아라비아는 5백만B/D의 쿼타를 배정받았으나 총회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공급 조 정자 역할 부여
1984.11~1986. 8 (70차, 1984.10.29~31)	1,600.0	28.08\$ / B (’85년 평균)	
1986. 9~1986.10 (78차, 1986.7.28~8.5)	*1,480.0	28.0\$ / B (’86년 평균)	총 쿼타는 1,600만B / D이하서 생산
1986.11 (79차, 1986.10. 6~22)	*1,496.1	17.52\$ / B (’87년 평균)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안한 18달러 기준가격 제도 도입 검토. 사실상 아라비아라이트가 기준유가로 서의 기능 상실
1986.12 (79차, 1986.10. 6~22)	*1,503.9	17.52\$ / B (’88년 평균)	
1987. 1 / 4~2 / 4분기 (80차, 1986.12.11~20)	*1,580.0	18.00\$ / B	7개 원유 바스켓에 따른 기준유가(목표유가). ’87년 연평균 총 쿼타는 1,663.2만B / D로 결정
1987. 3 / 4분기 (80차, 1986.12.11~20)	*1,660.0	18.00\$ / B	목표유가(<i>target price</i>)
1987. 4 / 4분기 (80차, 1986.12.11~20)	*1,830.0	18.00\$ / B	목표유가
1988. 상반기 (82차, 1987.12. 9~14)	*1,506.0	18.00\$ / B	이란은 기준유가를 20.70달러로 인상 주장
1988. 하반기 (83차, 1988. 6.11~14)	*1,506.0	18.00\$ / B	콘덴세이트개념 정의 논의
1989. 상반기 (84차, 1988.11.21~28)	1,850.0	18.00\$ / B	이라크에 이란과 같은 쿼타 부여로 이라크의 쿼타 체제 복귀. 쿼타 개념 정의, 기준유가 : 14~18달러 논의
1989. 하반기 (85차, 1989. 6. 5~7)	1,950.0	18.00\$ / B	목표유가를 기준유가로 개념변경
1990. 상반기 (86차, 1989.11.25~28)	2,200.0	18.00\$ / B	최저기준 유가(<i>mimumum reference price</i>)
1990. 하반기 (87차, 1990. 7.26~27)	2,249.0	21.00\$ / B	3달러 인상

*는 이라크의 쿼타제제 이탈로 미배정, MESS 종합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과 非걸프지역 OPEC國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가격인상 파와 시장점유율 확대파간의 갈등이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통증이 상당하리라 생각된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